

사회

광주·전남 시도민 모두가 '붉은악마' 목 터지게 외친 '월드컵의 밤'

26곳서 수만명 거리 응원전

최강 아르헨티나를 맞아 선전했지만 대한민국은 3골 차로 패했다. 열정과 투지를 앞세운 태극 전사들이 경기장 이곳저곳을 뛰어 최선을 다했지만, 승리의 여신은 결국 아르헨티나의 손을 들어줬다.

12번째 선수로 마음 졸이며 90분을 지켜본 시·도민들은 23일 한국팀이 나이지리아 전 승리로 16강에 진출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다.

거리 응원이 펼쳐진 광주 월드컵경기장과 전남대 도서관, 광산구 첨단쌍암공원, 여수 진남체육공원 등 광주·전남 26곳의 응원장은 7만 여명(경찰 추산)의 '붉은 악마'들이 모여 들어 응원전을 시작했다.

17일 오후 7시 광주시 서구 중앙동 월드컵경기장. 붉은 악마 뿔·풍선·악마·응원나팔 등을 든 시민·학생 '붉은 악마' 3만8000명이 관람석을 가득 매웠다. 오후 8시30분, 월드컵 한국-아르헨티나 경기가 시작됐다. 가로 10m·세로 5m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경기가 중계되는 동안 시민들은 "대~한민국""오~필승 코리아"를 외쳤다. 같은 시차 북극 웅봉동 전남대 도서관도 학생과 시민들의 합성으로 가득했다.

스크린도 부족해서 거리 이곳저곳에는 태극전사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전하는 시민들의 휴대전화 역동화면

이 밤하늘을 밝혔다. "공~공" 북소리를 따라 'Reds go together'를 열창하는 합성이 새벽 하늘에 울려 퍼졌다. 파도타기에서 꼭짓점 댄스까지, 밤을 잊은 응원 열기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사커시티 경기장 하늘에 그대로 투영되는 듯했다.

하지만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붉은 악마들은 스크린에 적힌 4-1이라는 석패의 점수를 멍하니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조산대 3년 박승대(25)씨는 "아르헨티나에 어렵게 패했지만, 태극전사들의 투혼은 빛났다"면서 "23일 나이지리아전에서 꼭

승리해 16강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진출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붉은 물결의 합성 소리는 광주·전남 곳곳에서 울려 퍼졌다. 광주 과학고와 조대부고는 교실·강당에 설치된 스크린이나 TV를 통해 태극전사들을 응원했으며, 광주 설월여고 등 대부분의 여고는 정규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을 조기 귀가시킨 뒤 붉은 응원의 대열에 동참하도록 했다.

중흥건설·중흥골드레이크 골프장·중흥골프장과 리조트 소속 직원 300명은 이날 나주 중흥골프장과 리조트 운동장에서 인근 지역 주민 200명과 함께 거리 응원전을 펼쳤다. 중

흥건설은 닭 100마리·돼지고기 400인분·주류를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했다. 동구 총장로 밀러타임·진품정육식당에는 퇴근 후 응원하러 온 직장인·대학생·시민 등이 모여 열띤 응원을 펼쳤다.

여수 진남체육공원에서는 7000명의 시민이 모여 거리 응원전을 펼쳤다. 북포 유달경기장과 순천 조은프라자 주차장에서는 각각 3000명과 2500명의 시민들이 모여 태극전사들을 응원했다. 경기가 끝난 밤 10시20분, 시·도민들은 "오늘은 어쩔잖세, 내일은 16강 진출"이라며 서로를 다독거리고 아쉬움을 달랬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17일 밤 한국과 아르헨티나전이 열린 가운데 조산대부속고등학교 학생 30여명이 교실 내 TV앞에 앉아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국-아르헨티나전이 열린 17일 광주 월드컵경기장 응원전에 나선 미녀들의 패션이 매력적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응원도 후끈 패션도 후끈

태극기에 핫팬츠... 눈이 즐거운 월드컵

월드컵 기간 동안 국민의 응원 열기 만큼이나 후끈한 패션으로 승리를 외친 미녀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월드컵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경기가 열린 17일 광주시 서구 월드컵경기장에는 가슴 부위만 가린 셔츠와 허벅지 선을 과감히 드러낸 핫팬츠 패션으로 응원에 나선 여성들이 많았다.

'눈이 즐거운' 이번 월드컵은 이래저래 흥미롭기만 하다. 여성 응원객들은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일정한 형식의 응원패션으로 무장(?)한 뒤, 곳곳에서

응원을 펼쳤다.

미녀들은 가슴만을 태극기로 두르고 어깨와 배꼽 등 상체를 모두 드러낸 경우가 많았다. 거의 허프까지 드러내는 핫팬츠로 보는 이들을 시원하게 했다.

남성들의 패션도 어느 월드컵보다 기발했다. 공 모양과 흡사한 모자를 쓰거나 빨간색 깃털이 달린 날개를 어깨에 맨 이들도 있었다.

응원도 하고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며 주위의 시선을 끄는 응원패션은 한국 경기가 이어지는 동안 날로 과감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돈받고 기자증 판매 일간지 본부장 영장

광주서부경찰은 17일 돈을 받고 기자증을 만들어 준 모 일간지 전남본부장 배모(56)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삼상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배씨로부터 기자증 제작을 의뢰한 뒤 웃돈을 얹어 되관 구모(53)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2007년 6월28일 김모(46)씨에게 30만원의 돈을 받고 위조한 기자증을 파는 등 최근까지 16명으로부터 970만원을 받고 기자증을 위조해준 혐의이며, 구씨는 배씨에게 산 기자증을 10배인 3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배씨로부터 기자증을 구매한 16명 중 7명은 공갈 등의 혐의로 이미 구속되거나 현재 재판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광주 새 도로명 안내도 전 세대에 배부

광주시, 53만부 제작

새롭게 바뀐 도로 이름이 실린 안내도가 올해 말까지 광주지역 모든 거주세대에 배부된다.

광주시는 17일 "광주시 전지역의 도로와 주요지형을 표시한 안내도 53만부를 제작했으며, 이를 오는 12월 10일까지 모든 세대에 배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안내도의 도로명 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되며, 도로명은 3440개 도로구간에 시·중·군을 설정해 부여하고 건물번호는 도로의 시점에서 종점까지 기본 간격 20m로 좌측은 홀수와 짝수로 건물 번호를 매

겨, 건물번호로도 거리 예측이 가능한 선진국형 주소체계가 적용됐다.

광주시는 또 도로명 주소를 모든 건물의 주출입구에 건물번호판 12만 1176개를, 도로에 도로명판 5886개를 설치했으며 오는 12월15일 도로명 주소의 법적주소 전환을 고시할 방침이다.

광주시 토지정보과 고해주 과장은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면 시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는 물론 물류비 절감, 구조·재난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전국의 도로명주소를 http://juso.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18분 해질 19시 49분 달돋이 11시 29분 달질 23시 58분

우산 챙기세요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비가 온 후 점차 개겠다.

구분	기온	강수량
광주	21/29℃	0.5~1.0mm
목포	21/26℃	1.0~1.5mm
여수	20/24℃	1.0~2.0mm
완도	20/24℃	1.5~2.0mm
구례	20/28℃	0.5~1.0mm
해남	20/24℃	0.5~1.0mm
장흥	20/24℃	0.5~1.0mm
고흥	19/27℃	0.5~1.0mm
순천	21/27℃	0.5~1.0mm
영광	20/28℃	0.5~1.0mm
진도	20/24℃	0.5~1.0mm
전주	21/29℃	0.5~1.0mm
남원	20/26℃	0.5~1.0mm
혁신도	17/22℃	0.5~1.0mm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1.0m 1.0~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0~2.0m 1.5~2.0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1.0m 1.0~1.5m 목포 06:32 11:47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0~2.0m 1.5~2.5m 여수 01:09 07:19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9(토)	20(일)	21(월)	22(화)	23(수)	24(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21/29	21/28	21/29	22/29	22/29	21/29

'청장 재판' 술렁이는 서구청

선거과정부터 입지 오락가락... 직원들 엇갈리는 전망에 혼란

광주 서구청 직원들은 요즘 혼란스럽다 못해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전주언 청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짐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전 청장의 정치적 입지가 오락가락한데다 검찰 수사에 이어 구속, 재판으로 이어지자 최근 한 달새 구청 직원들의 눈이 달아날 정도다.

전 청장은 애초 지난 5월 민주당 후보로 결정, 상대가 없는 서구청장

0순위로 뽑혔다. 이 때만 하더라도 서구청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청장이 관련 선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데다 관련 공무원 80여명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혼란이 시작됐다.

이로 인해 전 청장의 민주당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 대신 김선욱씨가 민주당 후보로 전락 공천되면서 급기가 직원 간의 분열로 이어졌다.

새롭게 민주당 후보가 된 김선욱

고, 새롭게 출발하자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던 서구청은 전 청장이 인사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전격 구속되면서 다시 들끓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재선에 성공한 만큼 전 청장이 무사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다른 직원들은 뇌물수수 혐의까지 가중된 상황에서 재선거나 보궐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다른 직원들은 전 청장이 자진사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래저래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상당수 직원들은 어려울수록 공무원의 직분에 충실하자며 서로를 독려하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장마 시작

7월 중순까지... 오늘 광주·전남 5~30mm 비

18일부터 광주·전남지역은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접어들겠다. 장맛비는 18일 오전, 광주·전남지역에 5~30mm의 비를 뿌린 뒤 오후에 개겠다. 20일에는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22일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장마는 7월 중순까지 계속되며, 예년 평균 강수량인 330mm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장마기간(6월21일~8월3일)에는 순천이 1007.8mm로 가장 많은 양의 비가 내렸으며, 광주가 776.1mm ▲여수 616mm ▲해남 612.8mm ▲목포 577.1mm를 기록했다.

◇장마철 강수량 330mm 이상=광주지방기상청은 올해 장마기간 강수량이 지난해 보다 40%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장마가 6월 21일부터 시작해 44일이나 지속돼 강수량이 많아진 탓이다. 지난해 광주·전남 등 남부지방 장마철 평균 강수량은 614.7mm였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올해 예상 강수량은 330mm 이상. 특히 이번 장마철은 지난해와 같이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의 낙뢰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낙뢰는 모두 67만 회였다. 하루 평균 1835회 꼴로 번개가 친 셈이다.

◇장마는 왜 올까? =여름철이면 지구 자전축에 따라 태양 고도가 78.5도까지 높아진다. 봄·가을 평균 고도는 55도, 겨울 평균 고도는 31.5도이다. 태양 고도가 높아지면서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면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확장, 오호츠크해 고기압과의 힘겨루기를 통해 많은 비가 내리게 된다.

한편 여름철(7월~8월)에는 2개~3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평년 태풍 수는 2.6개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만취승객 모텔서 성폭행

순천 택시기사 3명 구속

만취한 여승객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순천 N택시 기사 3명이 나란히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7일 술에 취한 택시 승객을 성폭행한 택시기사 이모(33·순천시)씨 등 3명을 강간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0시 16분에 순천시 조례동에서 만취해 자신의 택시를 탄 A(30)씨가

외국인 근로자 골라 강도짓

베트남 출신 3명 검거

광주광산경찰은 17일 외국인 근로자만을 골라 강도짓을 한 베트남 출신근로자 H(37)씨 등 2명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베트남 출신 공범 T(2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 등은 지난달 17일 오후 8시에 광주시 광산구 평동산단 모 공장 기숙사에서 스리랑카 출신 근로자 B(33)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시가 22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 B씨가 홀로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점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 중이다.

/중부취재본부=기원태기자 wtkee@

"대리가 시동도 못 걸어?" 폭행

○차량 시동제대로 걸지 못한 다며 대리운전 기사를 때린 자가운전자와 이에 맞서 주먹을 휘두른 대리운전기사가 나란히 경찰서형.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8시50분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 한 소주방 앞에서 대리운전을 부른 문모(59)씨가 "시동도 걸지 못하니"며 대리기사 강모(43)씨의 배를 때리자, 강씨도 강씨로 문씨의 얼굴을 때렸다는 것.

○경찰에서 대리기사 강씨는 "남은 차 때문에 시동이 안 걸린 것인데 갑자기 주먹이 날아왔다"며 억울함을 호소.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축제 벽화사업 뇌물 영광군 간부 입건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축제 홍보용 벽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공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영광군청 5급 공무원 정모(56)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돈을 건넨 모 미술연구소 대표 김모(46)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7년 10월 9일 영광군의 한 면장 재직 당시 면장에서 김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정씨가 축제 홍보용 벽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김씨가 4200만원 규모를 건넨 모 미술연구소 대표 김모(46)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중형기자 golee@kwangju.co.kr